

<p>As we approach an election for up to 4 elders for our church in coming weeks, I want to consider this morning the personal qualifications for eldership. What kind of person should an elder be? In the passages we have just read, the apostles Paul and Peter use 2 different Greek words for the English term “overseer” or “elder” – and it is clear from the passages that the words are used interchangeably. The first Greek word, is presbuteros and the second is episkopos. The original meaning of presbuteros is “old man” or “bearded one”. Episkopos means literally to “watch over”, “look after” or “care for”. Perhaps this helps to explain why Paul, in particular, uses the two different words to refer to an elder. Presbuteros points to the character of the elder and indicates that they are to be men characterized by dignity, maturity and wisdom. Episkopos, on the other hand, describes the elder’s function – to superintend and guard the church, to have responsibility for oversight of the spiritual and personal needs of the local church. The primary goal of elders is to edify and equip those they lead, thus enabling them to grow in their faith and contribute to the body of Christ, the local congregation of God’s people.</p>	<p>몇 주 안에 있을 우리 교회의 최대 4 명의 장로 선출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늘 아침 저는 장로직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 논하고 싶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영어로 “감독” 또는 “장로”의 두 가지 그리스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 그리고 구절들에서 이 표현들이 서로 대체 가능하게 사용되어짐은 분명합니다. 첫번째 그리스어는 프레스부테로스 (presbuteros)이며, 두번째는 에피스코포스 (episkopos)입니다. 프레스부테로스 (presbuteros)의 원래 뜻은 “노인” 또는 “수염난 자”입니다. 에피스코포스(episkopos)는 문자 그대로 “보호하다”, “보살피다” 또는 “돌보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왜 바울이, 특히나, 장로와 연관지어 이 다른 두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레스부테로스(presbuteros)는 장로의 품성을 가리키며, 이들이 품위, 성숙함과 지혜로 특징지어지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에피스코포스 (episkopos)는 교회를 관리, 감독하며, 지역 교회의 영적이며 개인적인 필요를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 장로의 역할을 묘사합니다. 장로의 주요한 목적은 그들이 이끄는 이들을 교화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지역 회중인, 그리스도의 지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The character of the elder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success of the work. We could almost assume this to be true, but the Holy Spirit has left us in no doubt about the matter. In the 3 passages we read this morning, there are spelled out in some detail the qualifications of those to be chosen and elected to the office of elder.</p>	<p>장로의 품성은 그 사역의 성공에 관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의 사실임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성령은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보았던 세 구절에, 장로의 직위에 선택되고, 선출된 자들의 자질에 대한 세부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p>
<p>Anyone seriously considering these qualifications would be ready to throw up his hands and resign the office, or never undertake it in the first place, if we did not know that God who sets the standard also provides the grace to attain it. This is our assurance, even as it was Paul’s himself. As he said to the Corinthian Christians: “Not that we are competent in ourselves.....but our competence comes from God” (2 Corinthians 3: 5). Whilst all elders should evidence something of these qualifications in their lives, none will exhibit them all perfectly all of the time. Like Paul, who was only too aware of his imperfections, we should exhibit the constant desire for God to be changing us into his image.</p>	<p>만일, 그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이루도록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자격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누구든지 이를 단념하고, 이 직위를 사임하고, 또는 애초에 이를 맡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확약입니다. 그가 고린도의 크리스천들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후 3:5). 모든 장로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러한 자질의 어떠한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모든 경우에 완전하게 이 모든 자질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처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는 갈망을 드러내야 합니다.</p>
<p>I believe that if we look at these 3 passages together we will find that the Scriptural qualifications for eldership can be gathered together under three headings which will help us to see the kind of men God intends the elders he calls to be.</p>	<p>만일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구절을 함께 본다면, 하나님께서 장로라 불리우도록 의도하신 이들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세 가지 주제로 장로직의 성경적인 자질을 추스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p>

<p>1. <u>Single-minded, spiritual men.</u>                  The elder must be wholeheartedly committed to God. Christ is clearly his Lord, and the elder’s chief desire is to ascertain God’s will for his life and to do it. Of course, he is human and so he may, at times, become distracted and even slip, but overall the main direction of his life is plain to see – he is devoted to his Lord and his service.</p>	<p>1. <u>일편단심의 영적인 사람들</u>                  장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명백히 그의 주인이시며, 장로의 주된 갈망은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사람이기에, 가끔은 주위가 산만해지고, 심지어 실족할 지 모르나, 전반적으로 그의 삶의 주된 방향은 그의 주인과 그를 섬김에 그가 헌신되어졌음을 명백히 아는 것입니다.</p>
<p>The eldership is a spiritual office. Neither wealth, nor status in society nor a good education is a requirement, but i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an elder to be a man of God. When Paul says in 1 Timothy 3: 1, “If anyone sets his heart on being an overseer (elder), he desires a noble task”, he suggests that a prospective elder should find an aspiration to this calling, a desire to do this work, developing in his heart. More and more, he should find that he is wanting to serve the people of God, the local church of which he is part, in this way.</p>	<p>장로직은 영적인 직위입니다. 부유함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또는 훌륭한 교육 조차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장로에게 전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1 에서 “곧 사람이 감독(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말할 때, 그는 예비 장로는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러한 부름에 대한 포부와 이 사역을 행하기 위한 갈망을 찾아야 함을 제안합니다. 점점 더, 그는 이러한 식으로 그가 속한 지역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함을 알아야 합니다.</p>
<p>Very few elders come ready made, so to speak, with all of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these 3 passages. Many, probably most, will feel that they have not fulfilled the requirements for elders set out by Paul and Peter. What we should come to terms with is that newly-appointed elders generally have to learn to be elders – to grow into the eldership. Their own experience of Christ qualifies them for eldership and their aim should be for their character to grow and develop into the fullness of the character of the elder described in these passages. The very fact that they will be part of a group of elders, the Session, accountable to one another and to the Lord should help, and the knowledge that the Holy Spirit leads and empowers God’s people daily, giving gifts and graces to each one, should also be a deep encouragement to take on this vital ministry in response to the Lord’s call.</p>	<p>아주 적은 수의 장로들은 이미 준비된, 말하자면, 이러한 세 구절들에 기재된 모든 자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 표현된 장로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수행해 오지 못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새로이 임명된 장로들은 일반적으로 – 장로직으로 성장하도록 – 장로가 되기 위해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체험은 그들에게 장로직에 대한 자질을 부여하고,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성품이 이 구절들에 묘사되어 있는 장로에 대한 충만한 성품으로 자라고 성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장로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며, 서로와 주님께 책임을 다하는 당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도움이 될 것이며, 매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각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 주요한 사역을 맡음에 또한 깊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p>
<p>Paul makes it clear that the elder must “not be a recent convert” (1 Timothy 3: 6) – that is, he must be mature in the faith. Singleness of mind is a quality that indicates maturity, and it is usually developed in the experience of Christian life and service, especially through times of hardship and struggle and doubt. This maturity should show through in the elder’s love of God’s Word and his openness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his life. He should be deeply grounded in the Word of God. Paul says in Titus 1: 9 – “he must hold firmly to the trustworthy message as it has been taught, so that he can encourage others by sound doctrine and refute those who oppose it”. How else can he minister to the person in the church who needs encouragement or instruction or warning in relation to practical living as a Christian in the family, in the</p>	<p>바울은 장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딤후 3:6). – 즉, 그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일편단심은 성숙함을 가리키는 특징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기독교적 삶과 성김의 경험, 특히 고난과 힘겨움, 그리고 의혹의 시간들을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로의 사랑을 통해 보여져야 하며,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 보여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1:9 절에서 “미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족 가운데, 직장에서 또는 교회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하여 용기와 가르침 또는 경고가 필요한 교회 안의 사람에게 달리 어떻게 그가 목회할</p>

<p>workplace or in the life of the church? How else can he expose and refute those who oppose God’s truth and standards? Indeed, Paul says that an elder should be “able to teach” (1 Timothy 3: 2). This is not to say that every elder will have gifts in preaching and expounding God’s Word but all will have the ability to instruct others, explaining God’s truth to them, and to expose error.</p>	<p>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고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은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딤후전 3:2). 이것은 모든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은사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며 잘못됨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p>
<p>Finally this spiritual maturity should show through, too, in his willingness to be an intercessor in prayer for the people of the congregation both in the corporate prayer meetings of the church and in his own private prayer every day.</p>	<p>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인 성숙은 교회 공동의 기도 모임이나, 그의 매일되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에서, 그가 기꺼이 회중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야 합니다.</p>
<p><b>2. Men of Godly Character</b> Godly words must, in the elder, become flesh and blood, that is, he must live them out. Even if there were no human eyes to see, godliness would still be a requirement because God looks upon the heart as we see in 1 Samuel 16: 7.</p>	<p><b>2. 경건한 성품의 사람들</b> 장로에게 있어 경건한 말씀은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는 이를 실행하며 살아야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사무엘상 16:7 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에 독실함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p>
<p>In relation to his character, the elder must first be “above reproach” or “blameless”. Clearly this doesn’t mean that he must be faultless in both his character and conduct – for he is still a frail and faltering human being. But it does mean that he should be a man whose life is characterized by moral integrity. Paul makes it clear that this blamelessness has to be something that is not only recognized by believers, but is recognized and appreciated by non-believers, too.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with outsiders”, Paul says in 1 Timothy 3: 7.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s going to be suitable for this kind of leadership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must, as a minimum requirement, be a man who, both in the fellowship of believers and in the secular world, is known as someone who clearly exhibits what biblical, Christian morality is all about.</p>	<p>성품과 관련하여, 장로는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또는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이는 그의 성품과 품행 모두에 흠잡을 곳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삶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결백함이 단지 믿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인정되고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전서 3:7 에서 바울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리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에 적합하게 될 자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믿는 자들의 교제와 세속적 세상에서 모두, 성경적이며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대한 모든 것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자로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p>
<p>What about the requirement that he must be “the husband of but one wife”? This cannot mean that he must be a married man. Rather, if the elder is married, he must be an example to others of faithfulness to his one and only marriage partner and be known to be of the highest and purest standards of sexual morality.</p>	<p>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어떨습니까? 이것이 그가 반드시 기혼자여야 한다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만일 장로가 기혼이라면, 그는 다른 이들에게 그의 단 하나뿐인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성적 도덕성의 가장 높고 순수한 기준으로 알려져야 합니다.</p>
<p>Thirdly, under this heading of a godly character, an elder should be “temperate, self-controlled and respectable” (1 Timothy 3: 2). Many decisions and activities of the elder require the good sense of a man who is serious-minded, disciplined and well-balanced. A man who is concerned to think his thoughts after God, and so turns to the Bible for guidance in decision making and in giving advice. A man for whom integrity, carefulness and faithfulness really matter. The orderly, dignified manner of life of the elder should attract others to Jesus Christ. And he must be self-controlled. How often has the work of God literally been</p>	<p>세번째로, 경건한 성품의 주제 아래, 장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딤후전 3:2). 장로의 많은 결정과 활동은 신중하고, 훈련되고, 잘 균형잡힌 자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생각들을 고려함을 중시하는 자는, 조언을 함과 결정을 내리는 참고로 성경에 의지합니다. 청렴함, 신중함과 충실함은 이들에게 진실로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정돈되고 위엄있는 장로의 태도는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이나 말을 통제하지 못한 목사나 장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그야말로 방해받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교회의</p>

<p>set back because of a minister or elder who could not control his emotions or his tongue!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hurch require men who can express their convictions in and out of the church courts with love, grace and forbearance. And he must be able to keep confidences. It is hard for church members to submit joyfully to a man who does not demonstrate that his own spirit is submitted to the Lord. On the other hand, the elder who always tempers his exercise of authority with kind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will find a people gladly submissive in the Lord.</p>	<p>평화와 번영은 사랑과 은혜와 관대함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교회 안팎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주님께 드러졌음을 입증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신도들이 기쁨으로 따르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 친절함, 상냥함, 자제력으로 그의 권위의 행사를 항상 단련하는 장로는 주께 기꺼이 순종적인 사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p>
<p>The elder's godly character will also be shown in his being "hospitable". The Greek word used by Paul here in 1 Timothy 3:2 suggests the capacity to be a friend to those he already knows who need to feel and experience the warmth of the Christian home and church, and to become a friend of the stranger whom he does not know. In much of the work of the eldership,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his wife (if he is married) is so important for the elder, and this is specially so in the area of hospitality. The elder whose home is an open-house and who has a warm fatherly (or brotherly) heart will encourage the whole church in this virtue.</p>	<p>장로의 경건한 품성은 "대접하는" 그의 품성에서 또한 보여져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2 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 표현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의 온기를 느끼고 경험함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는 역할과 그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역할을 제안합니다. 장로직의 많은 사역에 있어, 그의 아내 (그가 만일 기혼자라면)의 지지와 격려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접대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그러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가정의 장로이며, 아버지와 같은 (또는 형제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로는 이러한 미덕으로 교회 전체를 격려할 것입니다.</p>
<p>Another characteristic upon which Scripture puts a great deal of emphasis – and this comes through strongly in Peter's words – is that of humility. This emphasis is not difficult to account for. Just because the office is so exalted and honourable, only the humble man is fit to hold it – the one who is willing to admit his faults and gladly serve others, even sacrificially, following Christ's example. The elder is, in reality, a wonderful combination of ruler and servant. And it is not at all difficult in the midst of weighty decision-making and the pressures of congregational concerns, both in relation to individuals and the whole church, for the ruler to forget that he is also a servant. Therefore, he must constantly pray for a humble attitud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ithin the Session itself as it seeks to direct the local church to both progress and peace in Christ – that the elders should have an evident attitude of servanthood seen in the humble acceptance of and submission to one another.</p>	<p>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품성은 - 베드로의 말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겸손입니다. 이 주안점은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이 직위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오로지 겸손한 자가 이를 취함이 적합합니다 - 기꺼이 그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쁘게 다른 이들을 섬기며, 심지어 희생적으로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는 자입니다. 현실에서 장로는 다스림과 섬김의 훌륭한 조화입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 개개인과 교회 전체 모두와 관련한 중대한 의사결정과 회중의 우려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그 또한 섬기는 자임을 잊어버리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한 태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평온함과 나아감 모두로 지역 교회를 안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는 당회 내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 장로는 서로에 대한 겸손한 수용과 서로에게 순종함에서 보여지는 섬김의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p>
<p>Finally an elder should not be "greedy for money" (1 Peter 5: 2) or "a lover of money" (1 Timothy 3: 3). A man who tries to love Christ while at the same time loving money will find a constant tension of conflicting loyalties which can only ruin his spiritual calling. The effective elder will see his money as merely a provision from the Lord to help him fulfil and enjoy his life's calling. He will be faithful and generous-hearted in his stewardship of his material resources (especially his money) and of all the other gifts God has given him.</p>	<p>마지막으로,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벧전 5:2) 또는 "돈을 사랑하지"(딤후전 3:3)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영적인 부르심을 영망으로 만들수 밖에 없는, 서로 상충하는 충성심의 끊임없는 모순에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장로는 그의 돈은 그저 부름받은 삶을 이행하고 즐기도록 돕는,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는 그의 물질적인 원천 (특히 돈)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다른 선물들 모두의 관리에 있어 신실하고 넉넉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p>

<p><b>3. Men of Leadership</b> The elder should possess qualities which will, in various ways, enable him to lead the Lord's people. For a start, he should lead by example in his attendance at, and involvement in, the public gathering together of God's people for worship on the Lord's Day, for regular Bible study and for prayer.</p>	<p><b>3. 지도력의 사람들</b> 장로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그는 주일에 예배를 위해, 규칙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그리고 기도를 위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공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그리고 이에 관여함으로써 몸소 모범을 보여 인도해야 합니다.</p>
<p>But the eldership calls not only for godly maturity but also for gifts of wisdom, discernment, organization and initiative that not all men possess. Some maturing Christian men are peculiarly suited to the office of the eldership in this respect. Others seem better suited by their gifts to be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or to serve as deacons. Each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the local church, has his or her particular calling in the church using the gift or gifts that the Holy Spirit has given to that individual. The man, called of God to the office of eldership, will be increasingly equipped with the special gifts and graces with which to fulfil his role as a ruler and servant in the life of the local church.</p>	<p>그러나 장로직은 단지 경건한 성숙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지 않은 지혜와 분별력, 준비와 주도함의 은사 또한 필요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의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특히 장로직의 직분에 적합합니다. 다른 이들은 운영 위원회의 일원 또는 집사로서 섬김에 그들의 은사가 적당한 듯합니다. 지역 교회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일원은 성령께서 이러한 개개인에게 허락한 은사 또는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교회 안에서 각각의 특정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지역 교회의 삶에서 지도자와 섬기는 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점점 더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p>
<p>One place where there should be evidence of the elder's leadership qualities is in the home. The Holy Spirit through the apostle Paul tells us in 1 Timothy 3: 4-5 that the elder must make a major priority of his home, its spiritual character, its orderliness and its welfare. The total good and well-being of his wife and children will be ever before him. A prospective elder learns in the context of family life – its joys, sorrows, disappointments, contentment and heartache – he learns the patience and devotion which must be given to the flock of God, the whole family of God in the local church. As he pleads with God for his wife and children, so he will learn to plead with God for others under his care. As I mentioned earlier, unmarried men are not excluded from the office of elder and, again, their family relationships – with parents in particular – must evidence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work on behalf of and care for the congregation of God's people.</p>	<p>장로의 지도력의 자질의 증거가 있어야 할 한 곳은 가정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전서 3:4-5 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장로는 그의 가정의 우선 순위를 이에 대한 영적인 성격, 정연함과 이의 행복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의 완전한 선과 행복은 그 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 장로는 그의 가정 생활의 맥락에서 이것의 기쁨, 슬픔, 실망, 만족감과 심적 고통을 배웁니다. 그는 지역 교회의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모든 가족에게 주어져야 하는 참아냄과 헌신을 배웁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함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가 보살피는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함을 배울 것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자가 장로의 직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관계로 –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로 – 하나님 백성의 회중을 돌보고, 그들을 대표하여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p>
<p>How are we to interpret the reference in Titus 1: 6 to the prospective elder's children being "believers"? I believe that we should interpret these words written to Titus alongside the passage in 1 Timothy 3, which rightly, in verses 4-5, focuses our examination upon the way in which the man in question raises his family. The primary qualification that Paul puts forward in 1 Timothy 3 is that the elder's children must obey and respect him. In Titus 1: 6, we are also told that the children must not be "open to the charge of being wild and disobedient". Paul tells us in Ephesians that fathers are not to "exasperate" their children. In this light, we may safely interpret the word "believe" (or "are believers" in some translations) in Titus 1: 6 as meaning "are faithful or trustworthy". If the</p>	<p>디도서 1:6 절의 예비 장로의 "믿는 자녀"의 언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디도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평가를 논의되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디모데전서 3 장, 정확히, 4-5 절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 장에서 제언한 주요한 자질은 장로의 자녀가 그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6 절에서, 그 자녀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디도서 1:6 절의 "믿는다" (또는 "믿는 자들인") 라는 단어를 무방하게 "신실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비 장로의 자녀들이 반항이든 또는</p>

<p>children of a prospective elder consistently and openly disregard authority, either by rebellion or laziness, it is appropriate to investigate whether their father has been overly harsh or lenient in his treatment of them. Either of these qualities would be disastrous in an elder. We may also note from the Bible, cases where very godly men such as Samuel and David were succeeded by ungodly children. This did not disqualify their fathers from God’s service nor bring them any apparent censure from God. The fact is that no father – no matter how rigorously he teaches, prays for and guides his children – can guarantee faith in his children. Only God can do that. What Paul seems to be requiring here of an elder or prospective elder is that he establish within his family an atmosphere of godliness that is acknowledged and respected by his children – whether or not they ultimately believe.</p>	<p>나태함으로, 계속해서, 공공연히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들의 아버지가 자녀를 대우함에 있어 지나치게 가혹했거나 또는 관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특징 중의 어느 하나도 장로에게 있어서는 비참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사무엘과 다윗같은 매우 경건한 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로 계승된 사안들에 주목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명백한 질책을 초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얼마나 엄중히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의 자녀를 인도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장로 또는 예비 장로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결국 믿을지 아닐지 간에,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p>
<p>The second type of evidence of leadership ability is having a shepherd’s heart. An elder serves because of his devotion to and enthusiasm for the task of shepherding. “Be shepherds of God’s flock that is under your care, serving as overseers – not because you must, but because you are willing, as God wants you to be”, says Peter (1 Peter 5: 2). The elder has an abounding interest in the welfare of the sheep. The attention of the church will have been increasingly drawn to his humble devotion and selfless commitment before being elected to the task. If I am an elder and shepherd, my example will always influence Christ’s sheep, for I will be “leading them out” for him.</p>	<p>두번째 지도력의 입증은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장로는 목양의 소임에 대한 열의와 헌신으로 섬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벧전 5:2). 장로는 양들의 안녕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의 관심은 그 임무에 선임되기 전, 그의 겸손하며 이타적인 헌신에 점점 더 끌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장로이며 목자라면, 저의 본보기는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항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때문에 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p>
<p>How can we summarise what the New Testament writers, those trusted apostles of Christ, have to tell us about the qualifications for eldership – what kind of man an elder should be? T.G. Campbell, in his little book, “The Work of the Eldership”, summarises the issue most succinctly when he says – “The essential qualifications of the elder are that he loves God’s Son, God’s Book, God’s House (Household/Family), God’s Day and God’s Footstool”. Is this not a challenge to the character and spiritual life of the elder who would see his work as “a noble task”? May the Lord raise up for us here at Canterbury such elders to his glory and for our blessing.</p>	<p>그리스도의 충실한 사도들이었던, 신약의 저자들이 장로직의 자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해야 했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The Work of the Eldership” 에서 T.G. Campbell 은 가장 간결하게 이 주제를 요약합니다. – “장로의 필수적인 자질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선한 일”로 여기는 장로의 품성과 영적인 삶에, 이는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저희를 축복하사, 주께서 여기 캔터베리에 저희를 위한 그러한 장로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p>

Amen